

조선반 학습 계획 5 월 9 일

교재 : 한국어 6-1

교육 목표 : 한글학습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듣기,쓰기,읽기 네영역을 골고루 사용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과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시	수업내용	교재 및 자료
1 교시	10 과 문법 : ~ 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재능 기부하는 사람 소개하기	한국어 6-1
2 교시	역사 수업 : 조선 실학을 배운다 중요 인물 박지원 배우기	나누어준 프린트물
3 교시	숙제 풀이 프리젠테이션 준비 확인 하고 정리하기	읽기 교재

숙제

일기 1 장 이상 써오기, 어휘 연습해서 받아쓰기 준비하기

사이트에 있는 숙제물을 풀어오기

강승연 shuen98@hotmail.com

Tel: 2014500665

새로 배우는 어휘- 3 번 쓰고 단어를 넣어 문장 만들기

참가신청

업적

인생관

계기

근황

향후 계획

영화감독

전시회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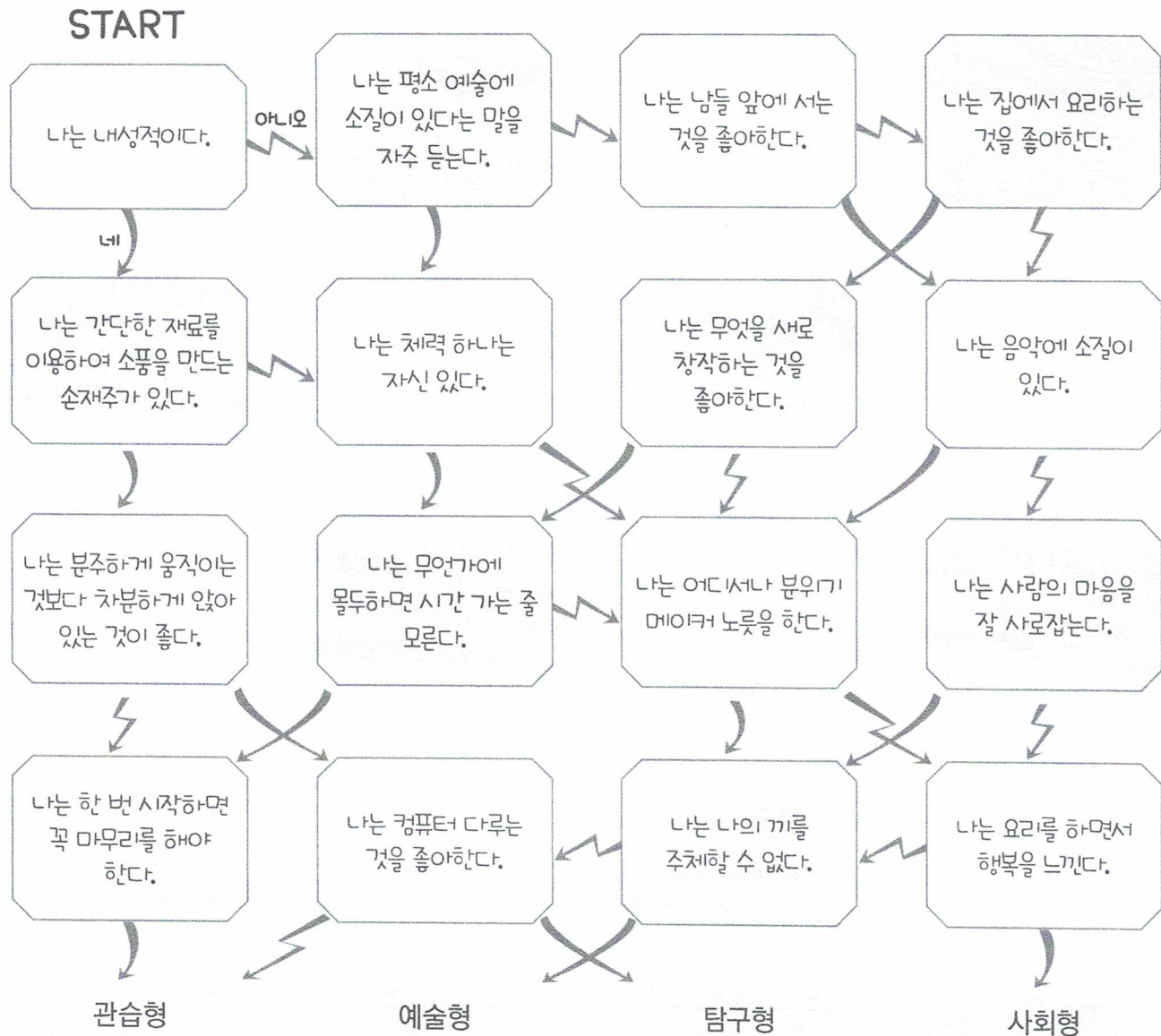
독특하고 실험적인

촬영

도전 정신과 진정성

탁월한 색채

1. 자신에게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리는지 알아봅시다.



유형	특징	어울리는 직업
관습형	책임감이 있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계획성이 있으며 사무 능력과 계산 능력이 높다.	세무사, 행정공무원, 은행원, 감사원 등
예술형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하다. 자유분방하며 개방적이고 예술에 소질이 있다.	웹 디자인, 게임 관련업, 큐레이터,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탐구형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수학적·과학적 적성이 높다.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화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사회형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인간 관계 능력이 높다.	파티 플래너, 이벤트 관련업, 놀이공원 매니저 등



활동

2. 앞으로의 유망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의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관심 있는 직업에 ✓ 해 보십시오.

21세기 10대 유망 직종

- ☐ 금융 자산 운용가
 ☐ 컴퓨터 보안 전문가
 ☐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개발자
 ☐ 경영 컨설턴트
 ☐ 마케팅 전문가
☐ 유비쿼터스러닝 교수 설계자
☐ 태양광 발전 연구원
☐ 기후 전문가
☐ 상담 전문가
☐ 실버시터

3.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 1)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 2) 무슨 일을 하는 직업입니까?
- 3) 이 직업을 갖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 5)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봅시다.

	현재	→	→	→
해야 할 일				

작문

이번 5 월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써보세요

지금 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건축물에 대해 조사한 것과
발표하려는 생각을 모두 정리하고 사진이나 그림도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합니다(최소 2 장이상 준비하세요)

한복의 세계화, 그녀를 인터뷰하라!

다음 기사는 한복의 세계화에 앞장 서온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린 이영희씨의 한복은 르몽드 기자로부터 「바람의 옷」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넉넉하게 감싸안으면서 자유롭고 부드러운 선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꼭 바람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복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이영희씨는 지난 2천년 카네기 홀에서 한복 패션쇼를 열었으며 2004년에는 맨해튼 32가에 이영희 한국 박물관을 열어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 굉장히 모시기 어려웠는데, 계속 미국을 오가신 것인가요?

네, 뉴욕을 거의 한 달에 한번 갔었어요. 지난 2007년 6월 7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에 한국관(Korea Gallery)이 개관했는데, 저희는 5월 19일에 행사를 하고 왔어요. 2003년에 이민 100주년 행사를 하러 뉴욕에 갔는데, 박물관 측에서 옷을 기증해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박물관 측에서 2년 동안 회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서 2005년에 제 옷을 100년 동안 보관해 준다는 서약서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만든 색상 그대로 전통 혼례복인 원삼과 관복 및 장신구 등을 추가로 전시해 달라는 박물관 관장님의 특별 요청이 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고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개관식 때는 못 갔지만 일부러 가서 봤더니 박물관 중앙 홀에 따로 전시를 해놨어요.

▶ 뉴욕에 있는 한복 박물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평상시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30년간 모았던 소장품 1,000여 점을 기증했어요. 제가 파리에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뉴욕에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저 자신이 생각해도 치마저고리를 두르고 어떻게 파리를 갔는가, 지금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저는 마음먹으면 금방 해버려야지 그것이 한 달 지나고 일 년이 지나가버리면 열정이 식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저 자신이거든요. 제가 뒤쳐지고 열정이 식는 게 제일 겁나요. 내가 나 자신에게만 이기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 유명 디자이너들도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에게 제 한지 작품집을 줬더니 손에서 놓지를 않고 '뷰티풀~!'을 연발하며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프라다는 제 옷을 아주 좋아해서 직접 매장에 오기도 했어요.

▶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인들에게 제 한복을 입히는 것이 꿈이죠.

한복의 세계화, 그녀를 인터뷰하라!

<질문>

1.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했는데, 어떤 뜻일까요?

2. 이영희씨가 미국에 자주 다녀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한복을 들고 세계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한복이 전시된 미국의 박물관 이름은 무엇입니까?

5.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6. 내가 직접 이영희씨를 인터뷰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한복 OX 퀴즈

다음의 퀴즈를 읽고 O, X로 답해 봅시다.

- | | O | X |
|--|--------------------------|--------------------------|
| 1. 한복은 한국의 전통옷을 가르키는 이름으로 2000년 전부터 입어온 한국인의 옷이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 한복은 치마가 우아하게 날리는 모습으로 외국인들에게 '바람의 옷'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 한복의 선은 한국 집, 즉 한옥의 선과 비교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여자의 한복은 주름이 잡혀 있어서 매우 편하고 체형 또한 가려준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어린이 한복의 소매는 무지개 같은 색동이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 한복은 옛날부터 결혼식이나 생일,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 입는 옷이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 여자들이 입는 한복은 각 나이에 따라,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른 색깔로 입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8. 한국은 예로부터 옷감에 색깔을 입히는 것, 즉, 염색(<i>dyeing</i>)과 직물(<i>weaving</i>)에 탁월하여 일본으로 가 그 기술을 가르쳤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9. 한국 사람들은 검정색을 아주 좋아하여서 예로부터 '검정옷의 사람들'로 불렸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복에 검정색을 넣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0. 한복은 5가지 색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그 5가지 색깔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이다. 그리고 그 색을 오방색이라 불렀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1. 5가지 색깔은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한옥에 색깔을 넣을 때도, 태극기를 만들 때도 쓰여졌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2. 한국인들은 양말처럼 버선을 신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우리 토박이말의 속뜻 - ‘굴레’와 ‘멍에’

[한국문화신문 = 김수업 명예교수] 자유는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다. 그러나 사람은 몸과 마음에 얹힌 굴레와 멍에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가 몹시 어렵다. 가끔 굴레를 벗고 멍에를 풀었을 적에 잠깐씩 맛이나 보며 살아가는 수가 있지만, 온전한 자유에 길이 머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마음에 얹힌다는 굴레나 멍에는 빗대어 말하는 것일 뿐이고, 참된 굴레나 멍에는 소나 말 같은 짐짐승을 얹어매는 연모이다.

‘굴레’는 소나 말의 머리에 씌워 목에다 매어 놓는 열개다. 소가 자라면 코뚜레를 꿰어서 고삐를 코뚜레에 맨다. 그리고 고삐를 굴레 밑으로 넣어서 목 뒤로 빼내어 뒤에서 사람이 잡고 부린다. 이때 굴레는 고삐를 단단히 붙들어 주어서, 소가 부리는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말은 귀 아래로 내려와 콧등까지 이르는 굴레의 양쪽 끝에 고삐를 매어서 굴레 밑으로 넣고 목 뒤로 빼내어 뒤에서 사람이 잡고 부린다. 굴레가

고삐를 맬 수 있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여, 말이 부리는 사람의 뜻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한다.



▲ 굴레나 멍에를 소나 말 같은 짐짐승을 얹어매는 연모이다. (그림 이국성 한국화가)

‘멍에’는 소나 말에게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를 끌게 하려고 목덜미에 얹어 메우는 ‘ㅅ’ 꼴의 막대다. 멍에 양쪽 끝에 멍에 줄을 매어서 소나 말의 목에다 단단히 묶어 놓고,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 양쪽에 매인 줄을 다시 멍에 양쪽에다 매면 소나 말은 도구에 목덜미를 꿰어서 벗어날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오직 사람이 부리는 대로 도구를 끌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소든 말이든 굴레는 씌우고 벗겨야 하고, 멍에는 지우고 풀어야 한다. 그런데 멍에는 일을 할 적에만 메었다가 일이 끝나면 풀어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지만, 굴레는 한 번 쓰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자나 깨나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멍에보다 더욱 괴로운 것이다.

사나이가 어른이 되면 코밑과 턱에서 돌아난 나뭇(수염)이 귀밑머리까지 이어져 마소의 굴레와 비슷한 모습을 이룬다. 이것을 본디는 ‘구레나룻’이라 하는데, 더러는 ‘굴레수염’이라고도 한다.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굴레’의 뜻을 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2. ‘멍에’의 뜻을 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3. ‘굴레’와 ‘멍에’의 본 뜻을 찾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굴레와 멍에는 무엇이 있는지 써 보세요.
